

재무비율을 이용한 농촌 중·노년기 가계의 재정상태 평가*

An Evaluation of Farm Households' Financial Status Using Financial Ratios

농촌생활연구소 가정경영과
농업연구사 崔 允 誌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조교수 崔 賢 子

Dept. of Home management, Rural Living Science Institute

Researcher : Yun Ji Choi

Dept. of Consumer Studies and Resource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Hyuncha Choe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선행연구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levels of assets and liabilities of farm households and to evaluate the financial status of rural middle-aged and old-aged household using financial ratios. For these purposes, an empirical survey data was gathered from rural middle-aged and old-aged households in 8 provinces,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877 households data were used in final analysis. The statistical methods used for data analysis are frequency, percentile, mean, median, standard deviation, χ^2 and t-test using SPSS/PC WIN program. Among financial ratios, 64.7% of total households could meet the guideline of consumption to income ratio, 5.9% of total households could meet the appropriate level of short-term and long-term liquidity. In the case of debt burden ratio, 82% of total households could meet the guideline. And 28.5% of total households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문의 일부임

could meet the guideline of capital stock ratio.

I. 서론

1960년대 이후 농촌 각지에서 광범위하게 전개된 젊은층 중심의 이촌향도 현상과 의학의 발달 등 생활환경의 개선으로 농촌인구 중 60세 이상의 인구는 1984년 13.4%에서 1994년 25.2%로 많은 증가를 보였다(통계청, 1995). 농촌의 급격한 고령화 현상은 농촌노인 가계의 경제적 빈곤과 그에 따른 노인 부양의 문제라는 사회문제를 발생시켰다. 일반적으로 생활주기상에서 개인적 또는 사회적으로 절정에 있으면서 동시에 인생의 후반부로의 진행 단계인 중년기에는 노후생활의 대책을 미리 계획·준비하여야 하나 농촌의 경우 소득의 불안정성과 유동성이 결여된 자산구조 그리고 가계재무관리 지식과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가계관리로 인해 노후를 위한 부(wealth)의 축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농촌 중·노년기 가계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분석·평가하는 일은 합리적인 재무관리를 유도하여 가계의 궁극적 재무목표인 재정적 안정(financial security)을 이룩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가계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소득과 지출 혹은 소비지출구조나 가계의 순자산규모를 측정하는 것이다(Prather, 1990; 성영애·양세정, 1997; 최현자, 1996; 민재성, 1993). 그러나 이 방법은 측정과 그 결과의 상호비교가 용이한 반면 자산보유 구조를 파악할 수 없어 대부분의 자산을 고정자산의 형태로 가지고 있어 가계 내의 유동성이 극히 부족한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 가계를 분석하는데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가계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두 가지 이상의 재정변수를 조합한 재무비율이다. 재무비율은 재무상당과 계획 시에 진단과 정보의 도구가 되며, 재정상태의 분석과 논의의 시발점으로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 재정적 능력의 평가에 대한 판단을 쉽게 하기 위해 구성

된 객관적 척도로서 각 가계의 재정상태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며 유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DeVaney, 1993; Garman & Fogue, 1994). 양정선(1997)도 가계의 재정상태 분석은 절대액에 기초한 단순측정보다는 상대적 비율 분석을 통해서 분석하는 것이 측정의 정밀성과 비교가능성의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재무비율을 이용한 재정상태 분석은 대차대조표와 소득지출상태표를 통해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해 가계의 목표달성의 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해준다. 외국의 경우 최근에 다양한 재무비율을 이용한 가계재정상태분석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순자산 저장(stock)을 통한 재정상태 분석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가계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적절한 재무비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재무비율을 이용한 국내연구로는 양정선(1997)과 김연정(1998)의 연구가 있지만 이들은 도시가계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도시가계와 여러 측면에서 특성이 다른 농촌가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 중·노년기 가계의 재정상태를 두 가지 이상의 재정적 항목의 측정치를 기초로 하여 재정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재무비율(financial ratio)을 통해 농촌 중·노년기 가계의 재정상태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현재의 농촌 노인들과 미래 농촌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장기적인 가계 재무관리의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농촌 생활지도사들에게는 가계의 재무설계 및 상담의 지침으로 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노인복지를 위한 정부의 정책입안시 기초자료로서 이용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II. 선행연구고찰

재무비율이란 원래 기업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를 비교하는 데 사용되는 비율로서 재무제표상에 표기

된 한 항목의 수치를 다른 항목의 수치로 나눈 것을 뜻한다(박정식, 1997). 기업체 등에서 사용되는 재무비율을 가계에 도입하게 된 것은 가계의 재정상태를 단순히 소득과 지출 등 한 측면만으로 측정하는 것보다 두 가지 이상의 재정적 항목을 사용하여 재정상태를 평가하고 유형을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가계로 하여금 재정목표에 도달하도록 적절한 저축과 투자유형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주며, 특정 가계의 상태를 평가하고 상담하는 목적에도 적절하다(DeVaney, 1993).

본 장에서는 다양한 재무비율 중 선행연구들에서 그 유용성이 입증된 재무비율을 중심으로 요약 정리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 나라 농촌 가계의 재정상태를 측정·평가해보고자 한다.

1. 재무비율의 종류와 준거기준(guideline)

재무비율은 대차대조표와 소득지출 상태표상의 소득과 지출, 자산과 부채에 초점을 두어 연구자마다 연구목적에 따라 다르게 선택되었다. Griffith(1985)는 가계재무상태 분석에 도움이 되는 16개의 재무비율을 제안하였는데 이들은 가계자산의 유동성에 초점을 둔 7가지 재무비율과 부채부담의 특성을 포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지불능력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4가지의 재무비율 그리고 재무구조중 유형자산의 비중을 측정하는 5가지의 재무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Prather(1987, 1990)는 Griffith가 제안한 16개의 재무비율의 표준을 세우기 위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가계의 재정상태를 파악하는데 가장 유용한 5개의 재무비율을 밝혔다. 즉 ① 월평균 지출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유동자산/월평균지출), ② 총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유동자산/총부채), ③ 비담보(non-mortgage)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유동자산/비담보 부채), ④ 단기부채와 기타 부채의 연간상환액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유동자산/단기부채와 기타 부채의 연간상환액), ⑤ 자산의 순가치와 유형자산의 합에서 주택의 가치를 제외한 것이 순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자산의 순가치+유형자산-주택의 가

치/순자산) 등이었다.

DeVaney(1994)는 가계파산의 예측에 대한 재무비율의 유용성을 시험한 결과 ① 유동성 ② 부채에 대한 자산의 비율(자산/부채), ③ 가처분소득에 대한 연간 총부채상환액의 비중(연간 총부채상환액/가처분소득)이 가계파산을 예측하는데 유의하였다고 하였다.

Winger와 Frasca(1989)는 부채의 이용에 있어서 적절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적절한 부채란 제때에 청구서를 갚을 수 있는 충분한 유동자산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순자산은 많지만 이것이 주택과 같은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의 형태라면, 이 가계는 비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총자산 중 일부를 현금 또는 예금과 같이 유동적인 부분에 할당해야 하나 현금이나 예금은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적절한 가처분소득과 유동자산의 비율, 단기부채 대 유동자산의 비율 등을 이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유동자산 대 가처분 소득의 비율은 가계의 비상금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가처분 소득의 3~6개월분의 유동자산이 필요하며, 유동자산 대 단기부채의 숫자가 클수록 유동성이 커지며 1.0을 넘으면 건실한 재정상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Garman과 Fargue(1994)는 유동성 비율을 가계가 실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게 되었을 경우 월평균 지출을 포괄할 수 있는 비율로 유동(금융)자산 대 월평균지출로 측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같은 적절한 유동성은 일시적인 화폐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에서 가계를 보호하며, 유동성 비율은 유동성 문제를 경고할 수 있는 지침이 된다. 보통 가계의 총자산이 증가하면 총부채도 증가하는데 적절한 양의 부채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부채의 사용은 지양해야 하며 이때 과도(excessive)하다는 것은 절대적인 액수의 많고 적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빚을 갚기 위한 자산과 소득에 기초한 비율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Langrehr & Langrehr(1989)는 잔여소득(residual income) 개념에 의한 부채부담 분석의 타당성을 주장하고자 잔여소득 비율을 이용하여 부채부담을 측

정하였다. 잔여소득 비율이란 가처분소득(take-home pay)에서 가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필수적·임의적 지출을 차감한데서 매달 부채상환액을 더한 것에 대한 매월 부채상환금액의 비율이다. 이 때 필수지출과 임의 지출을 고려한 이유는 식품구입이나 편의시설이용, 교통시설 이용등 일상적인 생활을 위한 소비지출을 해야 하며 부채상환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자금(fund)을 결정할 때도 이러한 지출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잔여소득비율의 사용은 소득 중에서 어느 정도의 부채를 유지할 수 있을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Garman과 Forgue(1994)는 가계의 재정상태를 평가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재무비율로서 총부채 대 총자산, 연간 부채상환액 대 총소득, 연간부채상환액 대 연간 가처분 소득등의 비율을 제시하였다.

Iwuagwu(1989)는 가계재정안정의 인식에 관한 부채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과 개인별 부채 부담뿐 아니라 Prather(1987)가 제안한 5개의 재무비율의 효과도 살펴보았는데 이 중에서 월평균지출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유동자산/월평균지출), 소비자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유동자산/소비자부채)이 가계 재정안정에 대한 인식과 정적인 관계를 나타냈으며, 총자산에 대한 인플레이션 자산은 강한 부적관계를 나타냈다고 보고했다(Lytton, Garman & Porter, 1991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연구들을 토대로 우리나라 농촌가계의 재정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표 1>과 같이 4가지 유형의 재무비율 -소득에 대한 소비비율과 유동성 비율, 부채부담비율, 자본축적비율-을 선정하였으며 이는 다시 9개의 하위비율을 통해 측정하고 각 비율의 준거기준에 근거하여 재정상태를 평가하였다. 소득대비소비비율(Ratio1)은 초과지출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유동성비율중 Ratio2와 Ratio3은 단기의 유동성지표로서 사용하였고 장기의 유동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Ratio4를 이용하였다.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재무비율을 이용한 농촌의 중·노년기 가계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농촌 가계의 자산과 부채 보유현황 및 재무비율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재무비율로 측정·평가한 농촌 가계의 재정상태는 어떠한가?

2. 용어의 조작적 정의

1) 중년기와 노년기: 본 연구에서 가계의 구분은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가구주의 연령이 40세에서 59세인 가계를 중년기 가계로 정의하였으며 노년기 가계는 가구주의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를 의미한다.

2) 유동자산: 농가가 소유한 자산중에서 빠른 시일내에 현금화가 용이하며, 현금화시 가치의 손실이 거의 없는 자산으로 현금, 예·적금, 대부금, 보험금, 계의 합으로 정의하였다.

3) 투자자산: 농가가 미래의 재정적 목표와 자산 증식을 위해 투자한 모든 자산으로 유동자산에서 현금보유액을 제외한 모든 자산의 합으로 정의하였다.

4) 실물자산: 농가가 소유한 주택과 건물, 토지, 농기계 및 재고농산물 등의 화폐환산액의 합을 의미한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 자료는 서울대학교 농가정학과와 농촌진흥청이 1996년과 1997년에 실시한 '농촌 가계의 경제문제와 안정도에 관한 연구'의 원자료를 이용하였다. '96년의 조사에서는 55세 이상인 주민을 전수조사하였으나 '97년의 조사에서는 현재 농촌지역의 노인(60세 이상)과 미래에 농촌 노인인구에 포함될 집

〈표 1〉 본 연구에서 이용한 재무비율

재무비율		개 념	guideline
소득 대비 소비 비율	Ratio 1) 월평균소비지출/ 월평균가처분소득	소득에 대한 소비비율로 현재의 재정적 지위를 측정하며 Lytton 등(1991)이 제안하였다. 1.0을 초과하면 생활비가 가처분소득을 초과함을 의미하므로 1.0미만을 준거기준으로 하였다.	1.0미만
	Ratio 2) 유동자산/월지출액	실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했을 경우 월평균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유동자산의 적정량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며 Griffith (1985)가 제안하였다. 각 가계는 3~6개월간의 지출을 견딜 수 있는 비상자금에 필요하므로 월지출액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이 3.0을 초과하여야 한다.	3.0초과
	Ratio 3) 유동자산/ 연간가처분소득	평균 지출의 대리변수로 가처분 소득을 사용하여 측정된 유동성 비율로 일년의 1/4(3개월)이라는 의미로 0.25가 제시된 것이며 DeVaney(1994)의 제언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0.25초과
유동성 비율	Ratio 4) 유동자산/순자산	총순자산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중을 평가할 때 이용하며 구체적인 재정목표 평가시 필요하다. 순자산의 25%이상을 유동자산으로 갖고 있어야 유동성을 지닌 가계라고 할 수 있다.	0.25초과
	Ratio 5) 유동자산/총부채	유동자산으로 가계부채 상황에 관한 재정적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Griffith(1985)는 이 비율의 기준을 총부채액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부채상황에 필요한 유동자산의 조달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였다.	0.1초과
	Ratio 6) 총부채/순자산	가계의 지불능력을 나타내주는 지표로 총부채가 순자산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재무관리를 해야 하므로 1.0미만이 준거기준이다.	1.0미만
부채 부담 비율	Ratio 7) 실물자산/총부채	실물자산을 통한 완전한 부채상환능력을 나타내 주는 지표로 1.0미만일 경우 실물자산을 처분하여도 부채를 상환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파산상태에 있는 가계라고 할 수 있다.	1.0초과
	Ratio 8) 투자자산/순자산	순자산에서 투자자산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Lytton 등 (1991)이 제언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0.2초과
자본 축적 비율	Ratio 9) 연간총저축액/ 연간가처분소득	가계의 저축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Lytton 등(1991)이 제언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0.1초과

단(40~59세)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 적합한 농촌 중·노년기 가계를 추출하기 위해 '96년의 원자료에서 노년기 가계에 해당하는 가구(711가구)를 '97년의 원자료에서 중년기 가계에 해당하는 가구(166가구)를 추출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PC WIN을 이용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였으며 각각의 재무비율(financial ratio)에 따른 재정상태는 빈도, 백분율, 평균, 중앙값 및 χ^2 와, t-test을 통해 파악하였다.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중년기 가계와 노년기 가계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조사대상 가계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2>와 같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단순저량으로 측정된 농촌 가계의 재정상태

다음은 농촌 가계의 재정상태를 총자산, 부채, 순자산등과 같은 단순저량을 통해 측정된 결과로서 <표 3>에 요약 정리하였다.

1) 자산

총자산은 유동자산과 실물자산을 합한 금액으로 조사대상 가계의 평균 총자산은 1억5,385만원이었으며 이는 농림부가 발표한 1996년의 농가 호당 평균인 1억4,266만원 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중년기의 경우 5천여만원이 높은 1억9,857만원으로 두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보유한 자산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동자산의 경우 조사대상 가계의 전체 평균은 1,554만원이었으며 이는 총자산의 10%를 차지한다. 중년기 가계의 평균 유동자산 보유액은 총자

<표 2>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구 분	중년기(40-59세)		노년기(60세이상)	
	구분	빈도(%)	구분	빈도(%)
가구주성별	남	155(93.4%)	남	453(63.7)
	여	11(6.6%)	여	258(36.3)
가구주연령	40대(40-49)	81(48.8)	60대(60-69)	346(48.7)
	50대(50-59)	85(51.2)	70대(70-79)	275(38.7)
			80대이상	90(12.7)
가구주교육수준	초등졸이하	66(40.0)	초등졸이하	627(88.8)
	중등졸이하	62(37.6)	중등졸이하	44(6.2)
	고등졸이상	37(22.4)	고등졸이상	3.5(5.0)
동거가족수	2명이하	42(25.3)	2명이하	391(60.4)
	3-4명	71(42.8)	3-4명	127(19.6)
	5-6명	53(31.9)	5-6명	129(19.9)
총소득(만원)	2042.88	(1588.16)*	1134.57	(6368.00)*
가처분소득(만원)	1954.79	(1634.63)*	1079.74	(1036.53)*
총지출(만원)	1518.01	(2128.04)*	716.60	(753.44)*

(*)안은 표준편차임.

산의 11.9%인 2,369만원이었으며 노년기 가계는 총 자산의 7.9%인 1,127만원으로 두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유동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형태의 자산별로 그 보유 가구비율을 보면 현금 및 예금 보유 가구 비율이 가장 높아 전체가구의 89.2%, 중년기 가계의 80.7% 그리고 노년기의 경우 85.5%가 현금 및 예금형태의 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보험불입액, 계, 주식 및 채권의 순이었으며 중년기 가계는 계나 주식 및 채권을 보유한 가계 보다 사채를 빌려준 가계가 더 많았다. 보유액수별로 살펴보면 현금 및 예금액이 중·

노년기 모두에서 가장 많았다. 중년기 가계의 경우 사채를 빌려준 가구는 적지만 그 평균 보유액은 계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주식 및 채권 그리고 보험불입액 순이었다. 노년기도 유동자산의 보유액 크기는 사채를 제외하고는 같은 순서로 나타났다.

투자자산은 유동자산에서 현금을 제외한 것으로 두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실물자산의 경우 전체 조사대상의 89.1%가 보유하고 있으며 중년기가계의 98.7% 그리고 노년기 가계의 86.9%가 실물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

〈표 3〉 단순저량으로 측정된 농촌 중·노년기 가계의 재정상태

단위 : 만원

	전체			중년기			노년기			t-value
	N	평균	S.D.	N	평균	S.D.	N	평균	S.D.	
현금및예금액	266	1387.19	2449.38	88	2061.88	3781.36	178	1053.64	1271.18	2.43*
주식 및 채권	14	706.43	853.29	7	907.14	1174.09	7	505.71	324.13	0.13
보험 불입액	119	642.87	918.89	63	730.46	1017.56	56	544.34	790.98	4.90***
계 빌려준사채액	41	613.61	683.09	10	1133.00	901.36	31	446.07	509.39	0.07
	12	1095.00	990.10	12	1095.00	990.10	-	-	-	-
유동자산	317	1554.52	2502.33	109	2369.58	3721.21	208	1127.40	1342.02	5.62***
투자자산	309	1465.24	2413.05	101	2160.98	3671.50	208	1127.40	1342.02	4.91***
주택 및 건물	742	3874.63	5417.34	158	3530.38	3754.30	584	3967.76	5784.86	0.31
토지	656	11638.24	19939.16	137	14085.18	25473.61	519	10992.32	18175.50	1.88
농기계등	419	1124.15	5097.97	122	1956.96	9128.67	297	782.05	1494.22	1.79
채고농산물등	329	2434.23	6929.26	103	2756.56	7354.68	226	2287.33	6738.25	2.04*
실물자산	782	15063.35	22118.71	164	18354.55	26648.01	618	14189.96	20689.00	2.74**
총자산	796	15385.81	22620.41	164	19857.89	28350.17	632	14225.33	20748.61	3.08***
대부금	423	1310.41	1227.80	118	1898.95	2135.58	305	1150.84	1374.09	5.47***
의상 및 할부	46	1215.87	1371.90	18	565.00	587.70	28	1834.28	1566.97	-3.27**
불입할 계돈	8	635.0	446.45	3	390.00	281.60	5	782.00	486.95	-0.47
사채	30	5293.67	11311.32	8	2083.70	4053.7	22	6460.91	12873.43	-0.94
기타 빚	14	1896.43	1774.01	9	1522.22	2851.53	5	2570.00	2687.37	-1.06
총부채	444	2162.51	5591.95	125	2206.30	2777.87	319	2145.35	6368.00	0.10
순자산 (총자산-총부채)	796	14207.39	22970.14	164	18179.31	28388.52	632	13176.71	20969.69	7.40***

* p<0.05 ** p<0.01 *** p<0.001

물자산 보유가구의 평균 보유액은 중년기의 경우 1억 8,355만원이었으며 노년기는 1억4,190만원으로 중년기 가계가 노년기 가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크게 나타났다. 실물자산 유형별로 보면 주택 및 건물(94.8%)과 토지(83.9%) 그리고 농기계(53.5%), 재고농산물(42.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보유액에서는 토지가 전체 실물자산의 약 77%로 차지하며 다음이 주택 및 건물, 재고농산물 그리고 농기계의 순이었다. 특히 총자산중에서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년기의 경우 92%, 노년기는 99%로 두 집단 모두 대부분의 자산을 고정자산 형태로 보유하고 있어 예기치 못한 사건에 대처할 수 있는 가계의 유동성이 극히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2) 부채

부채의 경우 전체응답자 877가구 중 444(50.6%)가계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중 중년기는 125(75.3%)가계가 노년기는 319(44.9%)가계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부채보유액은 2,162만원으로 이는 1996년의 농림부의 호당 평균 부채액 1,173만원을 초과한 금액이다. 중년기 가계의 경우 2,206만원, 노년기 가계의 경우 2,145만원의 부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표 3>의 결과에서 부채를 보유한 농가중 소수농가의 부채비중이 상당히 높는데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차입처별 농가부채의 구성을 살펴보면 은행을 통한 대부금을 이용하는 가계의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특히 노년기 가계의 경우 사채보유 가구의 평균 보유액이 6,461만원으로 이는 중년기 가계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차입액을 기준으로 보면 사채와 기타 빚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3) 순자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금액인 순자산은 전체 조사대상가구 평균 1억4,207만원으로 나타났다. 중년기와 노년기 가계를 비교해 보면 노년기의 경우 1억3,176만원으로 중년기가계(1억8,179만원)의 72% 수준으로 두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2. 재무비율로 측정된 농가의 재정상태

소득대비 소비비율, 유동성 비율, 부채부담 비율 및 자본축적 비율등의 재무비율을 통해 농가의 재정상태를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1) 소득대비 소비비율

재무비율을 통해 농가의 재정상태를 파악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초과지출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인 ratio1은 소득 대비 소비의 비율로 조사대상 가계 중 준거기준인 1.0 미만을 만족하는 전체의 64.7%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균값은 1.21로서 평균적으로 월평균 가처분소득 보다 소비지출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이는 준거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가계의 비율은 낮은 반면 이들 가계의 초과지출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35.3%가 초과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Bae, Hanna & Lindamood(1993)의 연구에서 전체 조사대상자의 40%가 초과지출하고 있다는 결과와 비슷하며, 양정선(1997)의 연구에서 13.7%가 초과 지출했다는 것과 비교했을 때 농가가 도시가계 보다 초과 지출하는 가계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도시가계에 비해 농가의 경우 낮은 소득과 소득의 불안정성으로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2) 유동성 비율

유동성비율의 경우, 단기의 유동성을 나타내주는 ratio2(유동자산/월지출액)와 ratio3(유동자산/연간가처분소득) 그리고 장기의 유동성 정도를 알 수 있는 ratio4(유동자산/순자산)를 통해 분석하였다. 단기 유동성 비율인 ratio2를 만족시키는 가계는 28.8%였으며, ratio3의 경우는 33.3%가 준거기준을 만족시켰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유동성 비율을 나타내는 ratio4는 자산의 적절한 유동화와 현금화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준거기준인 순자산의 25%를 유동성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가계는 6.2%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단기 유동성 지표중 하나와 장기 유동성 지표의

〈표 4〉 재무비율로 측정된 농가의 재정상태

재무비율		Guidline	전 체(N=877)			
			median	mean	%meeting	
소득대비 소비비율	Ratio 1) 월평균소비지출/월평균가처분소득	<1.0	0.61	1.21	64.7	64.7
	Ratio 2) 유동자산/월지출액	>3.0	12.50	6.90	5.9	28.8
유동성 비율	Ratio 3) 유동자산/연간가처분소득	>0.25	7.20	5.02		33.3
	Ratio 4) 유동자산/순자산	>0.25	0.06	0.06		6.2
부채 부담 비율	Ratio 5) 유동자산/총부채	>0.1	0.90	19.6	82.0	30.1
	Ratio 6) 총부채/순자산	<1.0	0.009	0.12		83.1
	Ratio 7) 실물자산/총부채	>1.0	7.57	17.08		79.6
자본 축적 비율	Ratio 8) 투자자산/순자산	>0.2	0.06	0.054	28.2	7.1
	Ratio 9) 연간총저축액/연간가처분소득	>0.1	0.20	0.18		26.3

준거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가계를 유동성이 건전한 가계라고 정의하였을 때 이를 만족하는 가계의 비율은 5.9%로 나타났다. 도시가계를 대상으로 한 양정선(1997)의 연구¹⁾에서는 유동성 비율을 만족하는 가계가 53.7%로 보고된 것과 비교해 볼 때 도시가계에 비해 농가의 유동성이 매우 떨어짐을 알 수 있다. Prather(1990)의 연구에서는 20%로 나타났지만 미국의 경우 신용사용의 편이성과 저축에 대한 관념이 우리와 상이함을 감안한다면 수치상으로만 비교하여 판단하기는 곤란하고 할 수 있다.

3) 부채부담비율

부채부담비율은 3개의 비율을 통해서 측정하였다. 먼저 유동자산을 사용하여 일부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가계의 재정능력을 나타내 주는 ratio5(유동자산/총부채)의 준거기준으로 Griffith(1985)가 제시한 0.1을 사용하였는데 이 기준을 만족하는 가계가 전

체가계의 30.1%로 나타났다. 즉 전체 조사대상 농가의 30.1%만이 총부채액의 10%이상을 상환할 만한 자원을 유동자산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Prather(1990)의 연구 결과에서는 71%로 양정선(1997)의 연구에서는 72.7%가 기준을 만족한 데 비해 극히 소수의 가계만이 이 비율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미루어 농가의 경우 유동자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어 이자등의 부채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ratio6(총부채/순자산)은 지불능력을 나타내주는 지표로 1.0이하여야만 지불능력이 있는 가계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 즉 총부채가 순자산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재무관리를 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준거기준을 만족시키는 가계가 83.1%로 나타났으며 이는 16.9%의 농가는 순자산보다 보유 부채액이 더 많아 모든 자산을 처분하여도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가계파산상태를 의미한다. 준

1) 양정선의 연구에서는 월지출액에 대한 금융자산(금융자산/월지출액)의 지표만을 사용하여 유동성 비율을 측정하였으며 준거기준인 3.0이상을 만족하면 적절한 유동자산 보유가구로 정의하였다. 이 때 금융자산은 예금, 주식, 채권, 보험, 계, 빌려준 사채의 총합으로 정의하였다.

거기준을 만족하는 가계의 비율은 Prather(1990)의 연구결과의 71%보다 높았으나 양정선(1997)의 연구결과인 96.3%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실물자산을 이용하여 완전히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을 제시해 주는 지표인 ratio7(실물자산/총부채)의 경우는 79.6%의 가계가 기준을 만족하는 가계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나머지 20.4%의 가계가 실물자산을 처분하여도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의미한다. 이 재무비율은 ratio6에 비해 좀 더 허용적인 부채상환능력 측정 지표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가계의 1/5이 이 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점은 농가의 부채사용에 대한 자체적인 통제노력이 요구된다.

4) 자본축적비율

가계의 재무구조 내에서 미래의 재정적 목표를 위한 자산 축적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두 종류의 세부 비율을 이용하였다. 먼저 ratio8은 순자산에서 투자자산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이 비율이 20%이상인 가계의 경우 자본 축적 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7.1%의 가계가 이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투자자산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ratio9는 연간 가처분소득 중에서 연간 총저축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연간 가처분 소득의 10%이상을 저축해야 가계가 미래를 위한 자본 축적을 건전하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가계는 26.3%로 나타나 현재까지 축적된 투자자산의 비중 보다 이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농가의 경우 지속적인 저축률의 유지 또는 상승으로 향후 투자자산의 증가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3. 각 재무비율의 준거기준 만족 여부에 대한 tree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ratio1~ratio9까지의 재무비율들은 4개의 재무비율, 즉 소득에 대한 소비비율, 유동성비율, 부채부담비율, 자본축적비율을 측정하기 위한 하위 재무비율이다. 이들 하위 재무비율의 준

거기준에 대한 전체 표본가구의 만족 여부를 tree 분석을 통해 살펴 보았으며 각각의 재무비율에 대한 준거기준 만족가구의 비율은 <그림 1>과 같다. 이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64.7%가 초단기의 재정상태를 파악하는 재무비율인 소득에 대한 소비비율의 준거기준을 만족하였으며 이 중 4.1%가 유동성 비율의 준거기준을 만족하였다. 소득 대비 소비비율과 유동성 비율의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가계 중 3.3%가 부채부담비율과 자본축적비율의 준거기준을 모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종류의 재무비율을 통해 가장 건전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가계가 29가구로써 전체 조사대상 가구의 3.3%만이 모든 재무비율의 준거기준을 만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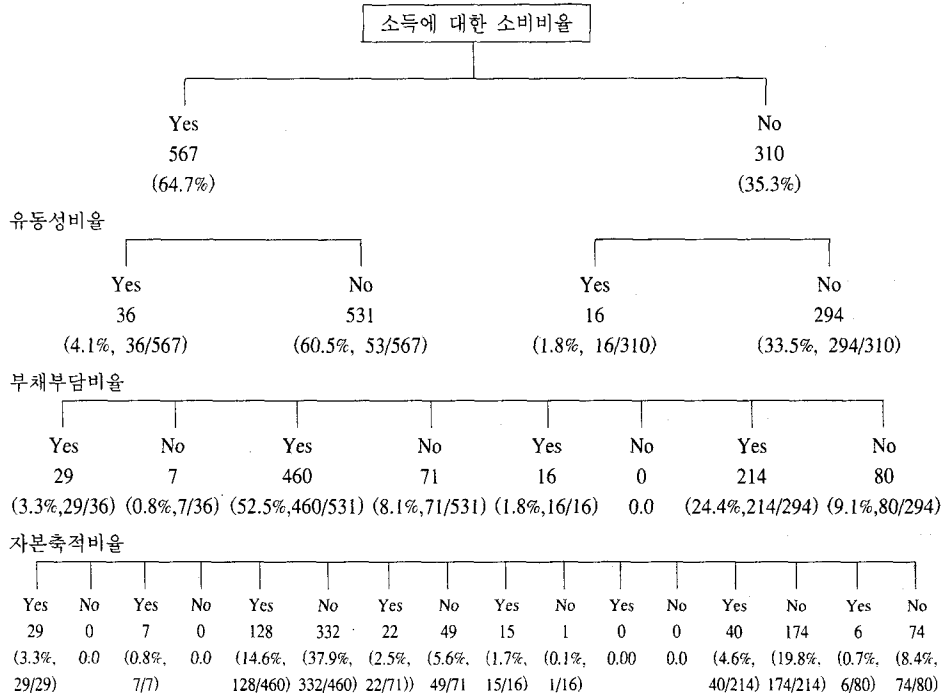
초단기의 재정상태를 평가하는 재무비율인 소득 대비 소비비율의 준거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가계(310가구)의 대부분은 유동성비율의 준거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4.8%). 적어도 3종의 재무비율의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가계는 전체 가계의 17.1%였으며 이들은 주로 소득 대비 소비비율과 부채부담비율 및 자본축적비율로 재정상태를 측정했을 경우 그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가계들이었다.

전체 가계의 45.1%는 2종류의 재무비율의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소득 대비 소비비율과 부채부담비율이 준거기준을 만족하거나(37.9%) 부채부담비율과 자본축적의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가계(2.5%+4.6%)였다.

한 종류의 재무비율만으로 가계의 재정상태를 측정할 경우 26.1%의 가계가 준거기준을 만족하였으며 이들도 주로 부채부담비율이나 자본축적비율로 측정된 경우이다. 또한 전체 가계의 8.4%가 모든 재무비율의 준거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가계 중 4가지의 재무비율을 모두 만족하는 가계와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가계의 특성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여성가구주의 경우 모두 만족하는 집단에서의 비율은 12.0%인데 반해 모두 불만족하는 집단에서는

〈그림 1〉 각 재무비율의 준거기준 만족·불만족 비율에 대한 tree분석결과



88.0%를 차지하여 여성 가구주 가계의 자산과 부채의 불균형 상태의 조정이 더 오래 걸린다고 한 Bryant (198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가구주의 성별, 생활주기 및 동거가족수에 있어 두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소득의 경우 모든 재무비율을 불만족 하는 가계의 경우 모두 만족하는 가계보다 3배 가량 낮게 나타난 반면 지출에서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유동자산의 경우에도 모두 만족하는 가계가 3,035만원임에 비해 모두 불만족하는 가계는 850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실물자산의 경우에도 모든 재무비율을 불만족하는 가계가 2배 정도 낮게 나타났다.

위의 분석 결과를 통해 볼 때 중·노년기에 처한 우리 나라 농가의 경우 상당한 가계(35.3%)가 초단기에서의 재정자원의 부족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단기와 장기에서도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또한 비록 초단기에서는 가계운영에 어

려움이 없다고 할지라도 유동성 측면에서 전체가계의 60.5%가 준거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재정상태를 나타냄으로써 전체가계의 94%가 초단기의 재정자원 부족이나 유동성 결여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모든 재무비율을 불만족 하는 집단에 속한 가계의 경우 총자산의 대부분이 고정자산 형태이므로 자산의 유동성이 결핍되어 경제적 스트레스가 심할 것이다. 따라서 유동성 형태로 자산을 보유하도록 권장해야 하며, 유동성 확보를 위한 소득원의 다양화와 소득의 안정화를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농촌 중·노년기 가계의 재정상태를 두 가지 이상의 재정적 항목의 측정치를 기초로 하여 재정상태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재무비율을 통해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첫째, 농가의

〈표 5〉 모든 재무비율로 측정된 재정상태와 가계특성의 차이

단위 : 명, %, 만원

		모두 만족 (N=29)	모두 불만족 (N=74)	χ^2 (t값)
성 별	남 (n=103)	23 (43.4)	30 (56.6)	12.54***
	여 (n= 82)	6 (12.0)	44 (88.0)	
생활주기	중년기 (n= 13)	8 (61.5)	5 (38.5)	8.19**
	노년기 (n=172)	21 (23.3)	69 (76.7)	
교육수준	초등졸이하 (n=163)	22 (24.7)	67 (75.3)	4.88
	중등졸이하 (n=12)	4 (50.0)	4 (50.0)	
	고등졸이상 (n= 9)	3 (60.0)	2 (40.0)	
동거가족	2명이하	13 (20.3)	51 (79.7)	7.82*
	3-4명	2 (18.2)	9 (81.8)	
	5명이상	11 (50.0)	11 (50.0)	
총소득	평균 (S.D.)	1811.48 (1180.75)	603.37 (670.16)	(5.13)***
총가처분소득	평균 (S.D.)	1676.04 (1081.74)	588.06 (656.49)	(4.99)***
총지출	평균 (S.D.)	703.45 (586.54)	648.00 (762.81)	(0.34)
유동자산	평균 (S.D.)	3035.97 (2975.00)	850.00 (919.24)	(1.02)
투자자산	평균 (S.D.)	2860.10 (2656.92)	850.00 (919.24)	(1.05)
실물자산	평균 (S.D.)	4438.41 (4938.79)	2182.95 (3265.72)	(2.06)*
총자산	평균 (S.D.)	8043.93 (9313.35)	2263.90 (3512.44)	(3.06)**
총부채	평균 (S.D.)	1284.14 (2390.35)	2043.57 (9479.73)	(-0.42)
순자산	평균 (S.D.)	6759.79 (8423.30)	226.22 (3577.74)	(3.25)**

* p<0.05 ** p<0.01 *** p<0.001

경우 소득과 자산의 부족으로 초과지출을 하고 있는 가계의 비율이 35.3%이었고, 4개 비율 모두를 불만족하는 집단의 경우 지출이 소득의 107%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농촌 가계의 건전한 재정상태를 위해서는 우선 소득의 유입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년기 가계에서는 농가 스스로 작목을 다양화하고, 노년기 가계에서는 노인들이 할 수 있는 농외소득원을 확보하여, 현금소득의 유입 빈도를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며 보다 적극적인 재무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구조의 불안정성은 오히려 재무관리를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즉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우는 계획·수립 및 이에 따른 수행과 반성 등이 가능하나, 불안정적이

고 예측하기 힘든 경우는 아예 재무관리를 포기할 수 있기에 농가를 위한 재무관리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소득과 채무관리를 보다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함과 더불어, 재무관리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계부 기록을 위한 지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중·노년기 가계 모두 총자산에서 실물자산의 비중이 높은 반면 유동성 자산이 낮게 나타났고, 단기 유동성을 만족하는 가계의 경우에도 장기유동성 비율에서는 불만족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생활에서 현금의 부족과 부채상환 능력을 떨어뜨려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발생시키며, 갑작스런 소득의 단절 현상이 나타났을 때 대처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갑작스런 자산의 유동화는 유동성이 적은 자산을 경제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현금화하게 되며 이는 시기적인 제한이나 부적절성으로 인해 불리한 거래가 되기 쉬워 경제적 스트레스만 더욱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과 장기 재무설계시에는 가계의 유동성 확보를 우선 목표로 삼아 유동자산의 비중을 최소 25% 이상을 유지할 수 있게 자산간의 재분배를 지도하는 등 농가 대상의 재무관리 교육 등에서 유도해야 할 것이며 토지 등의 고정자산을 이용한 농촌노인들의 노후대비 정책의 개발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외국의 학자들이 사용한 여러 가지 재무비율을 이용하여 농촌 가계의 재정상태를 측정할 시험적인 연구인 점과 생활주기 전반에 걸친 분석이 아니라 중년기와 노년기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노후생활에 대한 경제적 복지 정책 수립 및 개별 가계의 재무관리를 위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농촌 가계의 재무관리를 하는 지도사들에게는 지도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는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처음에는 재무비율의 준거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가계가 만족하는 가계로 변한 경우에 사회경제적 변인을 밝히거나, 가정생활주기 전반에 걸쳐 가장 주요한 재정적 목표 달성을 위한 저축 및 지출의 비율을 평가해주는 새로운 재무비율의 구성이 필요하며, 이러한 비율의 준거기준이 제시된다면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가계재무관리를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연정(1998). 재무비율분석을 통한 가계의 재정상태 분석-노후준비를 중심으로-. 한국소비자학회 '98학술발표회 자료집. 37-63.
- 농림부(1996). 농가경제통계.
- 민재성(1993). 한국의 노령화 추이와 노인복지 대책. 한국개발연구원.
- 박정식(1997). 현대재무관리. 다산출판사.
- 성영애·양세정(1997).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소비지출 구조 및 관련요인의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5(5), 103-117.
- 양정선(1997). 산술적 저량과 재무비율 측정을 중심으로 한 가계의 재정상태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현자(1996). 가계내 신규부채수요 결정요인과 부채이용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3), 59-73.
- 통계청(1995). 한국통계연감.
- Bae, M.K., Hanna, S & Lindamood, S.(1993). Patterns of Overspending in U.S. Household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4, 11-30.
- Bryant, W.K.(1986). Assets and Debts in Consumer Portfolio. *Journal of Consumer Affairs* 20(1), 19-35.
- DeVaney, S.(1993). Change in Household Financial Ratios Between 1983 and 1986 : Were American Households Improving Their Financial Statu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4, 31-46.
- DeVaney, S.(1994). Usefulness of Financial Ratios as Predictors of Household Insolvency.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5, 5-23.
- Garman, E.T. & Fogue, R.E(1994). *Personal Finance*, 4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
- Griffith, R.(1985). Personal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 A modest beginning In Langreher(Ed). *The proceedings of AFCPE*, 123-131.
- Langrehr, V.B. & Langrehr, F.W.(1989). Measuring the Ability to Repay : The Residual Income Ratio. *The J. of Consumer Affairs* 23(2), 393-406.
- Lytton, R.H., Garman, E.T. & Porter, N.M.(1991). How to Use Financial Ratio When Advising Client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2, 3-24.
- Prather, C.G(1987). Ratio analysis of Personal financial Statements : Household norms, Unpub-

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SU.
_____(1990). The Ratio Analysis Technique Applied
to Personal Finance Statements :
Development of Household Norms. *Financial Counsel-*

ing and Planning 1, 53-70.
Wingrer B.J. & Frasca R.R.(1989). *Personal Finance*.
second edition. Merrill Publishing Co.